

통계로 본 한국과 EU

對 EU 수입 10년간 67% 늘었다

수출은 44% 증가 그쳐...1인당 GDP EU의 91% 수준

한국 기대수명 EU보다 높고 고등교육 이수율은 두배

유럽연합(EU) 27개국이 2010년 한국에 수출한 액수가 10년 전보다 67% 증가했으나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26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과 EU' 보고서를 보면 EU의 2010년 대(對)한국 수출액은 279억 8400만 유로로 2000년(167억4200만 유로)보다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액은 269억5500만 유로에서 386억8300만 유로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2010년 한국의 국민총생산(GDP)은 7650억 유로로 EU(12조2570억 유로)의 6.2%였다. 스페인(1만513억 유로)과 네덜란드(5880억 유로)의 중간 수준이다.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는 2만9천4달러로 EU(3만1737달러)의 91%였다.

2010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한국은 2.9%, EU는 2.1% 상승해 한국의 상승폭이 높았다.

200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2008년 기준 EU(1.6명)보다 낮았다. 특히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20~24세 젊은 층이 줄었다. 앞으로 30년간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EU 27개국의 총인구는 2010년 5억 명을 돌파했으며 1990년 이후 연

간 0.3%씩 증가했다. 이민 등 인구가 동에 따른 증가다.

한국 인구는 약 4900만명으로 스페인(4600만 명)과 비슷하다. 인구밀도는 1km당 488명으로 EU 평균(116명/km)의 4배를 넘었다.

2009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0.5세로 EU(79.4세)보다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비율은 한국(4.8%)이 EU(5.1%)보다 낮았다.

한국은 공교육비의 60%를 정부가, 40%를 민간이 부담했으나 EU는 정부가 86%를 부담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교육비 민간부담률이 높은 것은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민간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09년 한국의 30~34세 연령층의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은 60%로 EU(32.3%)의 두 배에 가까웠다. 특히 해당 연령층 여성의 이수율이 2000년 27.4%에서 2009년 58.3%로

크게 늘었다.

2010년 한국의 25~5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6.4%로 EU(84.9%)보다 낮았으나 55~65세는 한국(62.7%)이 EU(49.7%)보다 높았다. 같은 해 실업률은 한국이 3.7%, EU는 9.7%였다.

2010년 분위별 소득점유율 중 1분위 점유율은 한국(6.7%)이 EU(4.0%)보다 높았다. 1분위는 가구를 소득 크기 순으로 5등분 했을 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한국의 총 가구수는 약 1600만 가구다.

한국의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2010년 기준 97%로 EU(70%)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의 1000명당 자동차 소유 대수는 1992년(78대)에서 2009년(262대)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EU는 같은 기간 348대에서 473대로 늘어났다.

한국의 1000명당 자동차 소유 대수는 1992년(78대)에서 2009년(262대)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EU는 같은 기간 348대에서 473대로 늘어났다.

“똑똑한 소비하자” 너도나도 클릭

공정위, 스마트 컨슈머 접속 폭주에 서버 두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1일 출범한 한국판 컨슈머리포트가 소비자들의 접속 폭주로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정체를 겪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소비자들이 생산한 'K-컨슈머리포트'는 출범 당일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접속자 수(1일 3

만명)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정체를 겪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컨슈머 서버 용량을 2배 증설해 시스템 과부하 문제를 해결했다.

공정위는 K-컨슈머리포트 1호 론칭에 맞추어 소비자원과 함께 등산화에 대한 이용 후기 공모전을 내달 1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공모전은 K-컨슈머리포트에 대

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지도 제고와 실제 경험한 다양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작(40개)에 뽑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는다. /연합뉴스



정부, 미국종합처리장에 7천억 지원

벼 수확기 출하량 흡수...쌀값 안정 목적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 종합처리장(RPC)에 700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의 벼 관로 확보, 쌀 가격 안정, 산지 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국 231개 RPC에 7283억원을 최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RPC(Rice Processing Complex)는 정부지원 대상이 된 벼 건조·저장·가공 일괄시설을 갖춘 도정업체로 쌀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벼 수확기에는 집중하여 출하되는 물량을 흡수함으로써 정부 수매 기능을 보완한다.

품질원은 지난해 벼 매입실적 등을

반영한 경영실적을 평가해 RPC별 급리율 연 0~2%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올해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이다. 이번에 배정하고 남은 자금은 9월과 11월 수확기 벼 매입을 둘러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품질원 관계자는 "RPC에 자금을 지원하면 농민이 생산한 벼의 판로 및 수익에 도움이 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탁회사 수탁고

11% 늘어 411조

지난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국내 57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전년 말 대비 40조2000억원(10.8%) 늘어난 4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탁고 기준으로 신탁회사 중에는 은행이 182조원(44.3%)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부동산신탁회사가 151조원(36.8%), 증권사가 77조원(18.7%), 보험사가 7000억원(0.2%)을 각각 차지했다.

증권사 수탁이 22.1%(13조9000억원) 늘어 전년말과 비교할 때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은행은 17조원(10.3%), 부동산신탁회사는 9조1000억원(6.4%) 각각 증가했다. 보험사는 전년말 대비 2000억원 늘어 42.8% 증가세를 보였으나 총 수탁고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신탁재산별로는 재산신탁이 241조 1000억원(58.7%)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금전신탁이 169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조9000억원(22.3%)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연합뉴스



제주 은갈치값 내렸어요

음달 21일까지 미리당 4980원에 판매한다.

26일 이마트 생선코너 담당 직원이 제주산 냉동 은갈치를 정리하고 있다. 이마트는 '은갈치'로 불리는 갈치를 산지 대량매입을 통해 가격을 대폭 낮춰 4월 21일까지 미리당 498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 제공)

光銀 '더블찬스정기예금' 한시 판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4일간 KOSPI 200지수에 연계한 '더블찬스정기예금 65호'를 한시 판매한다.

이 상품은 1년제 정기예금으로 KOSPI 200지수의 상승률에 따라 연 14.0%를 제공하는 형태와 KOSPI200지수의 하락률에 따라 원금보장 및 최고 연 9.0%를 제공하는 양방향형 수익률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기준지수결정일 익일부터 만

기수결정일까지 기준지수가 장중 1회라도 20% 초과 상승하는 경우에 연 3.5%로, 20% 초과 하락할 경우 별도 수익없이 원금보장으로 수익이 확정되는 너-아웃형 예금상품이다.

가입대상 제한은 없고,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며, 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농식품 인증·표시제 강화

농식품부 안심환경 구축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농식품 소비안전의 효율적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따르면 식품 안전과 관련된 소통 대상을 넓히고 소비자 참여형 거버넌스를 확대하며 '안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호식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인증·표시제 기반도 구축한다.

농식품인증제심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이 유사한 다양한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하는 '한국 농식품 표준제도(KAS, Korean Agro-Foods Standards)'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의 내실을 다진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중적 수요가 높고 둔갑 가능성이 큰 농축수산물에 연차적으로 늘려 올리는 명태, 고등어, 염소고기, 김치류, 고춧가루 등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음식점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글자 크기, 표시 위치 등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원산지표시 감시·조사에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u-보증자리론' 대출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26일 'u-보증자리론'의 4월 대출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대출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증자리론'의 금리는 연 4.8%(10년)~5.05%(30년)로 유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 10년간 최저 연 4.4%, 2500만원 이하이면 연 3.8%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 1위 농업전문기업 신젠타

잔디 잡초방제의 새로운 해결사!



입상수화제

모뉴먼트 입상수화제의 특징 및 이점

- 다양한 잡초에 적용 가능한 광범위 제초제입니다.
- 락트산 등 문제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합니다.
- 잡초 발생 후 뿐만 아니라 발아 전 사용시 예방효과가 우수합니다.
- 적은 약량으로 우수한 약효를 발휘합니다.
- 약효지속기간이 길어서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 잔디(한국잔디)에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모뉴먼트 입상수화제의 적용대상 및 사용량

작물명	적용 잡초	사용 적기	물20ℓ 당 사용약량	0.8g살포면적
한국 잔디	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	잡초 발생초기 (바랭이 3엽기 이내)	0.8g	100㎡



- 경기지점 031-225-0077
- 강원지점 033-761-9171~3
- 충북지점 043-624-4497
- 충남지점 042-624-5595
- 전북지점 063-251-8191~3

- 전남지점 062-365-6677
- 경북지점 053-751-5536
- 경남지점 055-255-5863
- 제주지점 064-752-6101

상담전화 1588-3889
무료상담전화 080-900-1114

신젠타 코리아(주)